

금박연

어사화 피는 북촌

영원불변, 아름다움, 권력을 상징하는 금(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나라별로 왕실이나 종교에서 고귀한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다양한 기법들을 통하여 가구, 건축 등에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조선에서는 궁중 의복과 어필(御筆: 임금의 손수 쓴 글씨) 등에서 얇은 금을 입히는 금박 공예가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 금박(金箔)을 다루는 장인들은 주로 궁궐을 오가며 작업을 했었고, 역사적 가치와 함께 금박 문화를 집안 대대로 이어갔다. 지금도 경복궁과 창덕궁 궐담 사이에 위치한 북촌에는 이와 같은 자취가 아직 남아있다. 약 150년에 걸쳐 오늘날까지 소중한 우리의 궁중 문화를 전승해오고 있는 '금박연'이 그 주인공이다.

이제는 왕실만의 문화가 아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금박 공예는, 김기호 장인과 함께 아직도 변함없이 궁궐을 마주한 자리에서 빛깔을 간직하고 있다.



“금박물린 땀기가 나빌레라”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장인 이야기

기업과 함께 시작된 나의 일

원래는 IT 관련 전공을 했었어요.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만 두고 금박 공예로 전환한지 약 열 달 만에 IMF가 왔었지요. 시작부터 경제위기가 닥치니 무엇이든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려오던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라 생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죠.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눈을 떠 보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누님, 고모님, 이모님 등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이 일을 했었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간간히 톱질을 잡아드리고 작업실이 그냥 저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종로에서 배달 일도 다니면서 용돈도 받았었고, 어머니도 금박을 하시며 부속에 필요한 바느질까지 하셨고요. 이 일이 그래요. 하다보면 필요한 다른 일까지 온 식구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 것이 오늘까지 영향이 크죠. 요즘은 예전만큼 일이 많지는 않아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매달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안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이것을 보며 배우는 중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된 도구들 목판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섬세함을 자랑한다. 풀을 바르는 붓도 눈에 띄는데 이는 김경용 3대 장인과 김덕환 4대 장인 때 사용된 것이다. 옷칠을 할 때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인모 붓이 사용되었다. 작업에 사용되는 숫돌은 거칠기가 각각 다른 세 종류를 사용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숫돌은 무르기 때문에 김기호 장인은 직접 만든 숫돌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금박연’의 계보

과거에 조선왕실의 행사 자금을 관리하고 수출입을 담당하던 내수사(內需司)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조부이신 김원형 1대 장인이 근무하셨어요. 당시 중국의 예복들은 직조기에 금실을 넣고 짜는 금직이 발달했었는데, 조선왕실에서도 이 수입 비단을 많이 사용했었지요. 그러다가 철종 때, 저희 고조부께서 중국의 금직을 대신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달해 온 금박을 직물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집안이 궁중의 금박 작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게 되었지요.

명확한 문헌 기록이 남은 건 증조부이신 김원순 2대 장인부터 남아있어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등의 의궤에 부금장(付金匠: 금을 붙이는 장인)으로 기록에 나와요. 당시에 저희 집안 어른들은 비단에 금을 붙이는 작업 외에도 왕실의 현판에 금박을 놓는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제 조부이신 김경용 3대 장인인데, 조부님께서 증조부님을 도와 낙선재를 오가며 덕혜옹주 의복에 금박을 놓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왕실을 위해 일을 한 건 조부님이 마지막이었어요.

조선은 유교사회로 왕실 외에는 금박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일부 양반가에 금박 유물이 남아 있기도 한데, 그것은 왕족이 양반 가문과의 혼사 등으로 출가 할 때 받았던 하사품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은 궁궐과 자주 왕래한 이 동네(북촌)의 권문세족들이었겠죠. 조선왕실이 사라지자 민간에서도 금박을 활용하게 되는데, 궁궐이 있던 자리, 특히 북촌 인근에서 그 수요가 많았었지요. 조계사 부근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공방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본가는 증조부께서 조선시대 때부터 집을 짓고 사셨던 공평동이었는데, 그곳 안채에 주거하며 사랑채는 작업장이었어요. 당시에 거의 오십 평이 넘었죠.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집이기도 하고요. 조부님께서는 공평동에서 작업을 하며 그 부근에서 보료집과 공동으로 전방(塵房: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을 운영하셨어요. 밀 준비는 집에서 했고, 전방에서는 금을 붙이는 작업만 했어요. 손님도 맞이하고, 작업도 하고, 주문도 받으시면서 바쁘게 일을 꾸려나가셨죠. 6.25 전쟁이 끝난 뒤 그 집을 파신 후에는 이 북촌 근처로 이사를 왔었어요. 지금은 공평동 그 집이 '안래홍'이라는 중국집인데, 아직도 골조는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님하신 김덕환 4대 장인 때에는 마포에 오래 있었고, 답십리와 분당에서도 각각 15년 정도 살았어요. 5대인 저는 지금 이 공방과 홍제동에 있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여기저기 옮겨가며 살았지만, 지금은 다시 종로구 북촌에서 금박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날, 금박의 수요

예전에는 주단집에서 금박을 필요로 했어요. 요즘의 한복 집과 같은 것인데, 종로2가에 주단집이 제일 많았었고 거기서 비단도 짚었어요. 20여 년 전까지는 주단집에서 완성된 옷을 가져온 후 그 옷에 금박을 찍어주고 공임을 받았어요. 주단 집에서의 수요가 거의 95%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복집 작업은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한복집들이 사라졌고, 작년에는 종로에 있던 마지막 주단집이 문을 닫았어요.

현재 수요를 살펴보면, 한복 작가들로부터의 수요가 30%, 제 개인작품 제작이 30%, 문화 상품 작업이 10%이고 나머지는 교육 사업이에요. 수업은 이 공방 또는 외부에서 진행돼요. 며칠 전에는 강원도의 학교, 박물관, 기업체에서 강의와 체험 교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작품 제작하는 일 외의 수익 사업은 거의 없어요.

금박은 전승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무언가에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요즘은 프로젝트별로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저와 협의하고 비용을 받은 후, 도움을 드려서 결과물을 완성하는 식이에요. 도자기를 복원하는 작업도 새로 계획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다시 예술로 탄생시키는 '킨츠기



금박 보(襖) 가운데 위치한 용 문양은 영친왕비 적의 보에 있는 자수 문양을 조각한 뒤 부금한 것이다. 가장자리에는 김경용 3대 장인이 만든 용 문양과 왕실에서 썼던 구름 문양을 배치하여 김기호 5대 장인이 재구성하였다.

‘金繼ぎ’ 장인도 따로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십오 년 정도 혼자 했는데, 그걸 경험 삼아 진행하고 있어요. 생칠과 토본 등의 천연 재료만 사용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금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수요가 있다 보니 이것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화려한 금박을 입히고 사용하는데 드는 작업량

전통 작업 방식을 설명하자면, 먼저 행사에 쓰일 옷에 따라 문양을 계획하고 도안을 짜요. 크기에 맞는 목판을 짜고, 도안을 본 떠 조각하면 그걸로 금박이 들어갈 문양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문양을 새겨놓은 목판들을 구성만 달리하여 재사용 할 수도 있어요. 과거 왕실 결혼과 같은 큰 행사의 경우, 도안부터 조각까지 전용 문양을 새로 제작합니다. 사실 도안 디자인과 목판 조각이 90% 이상의 작업을 차지합니다. 풀을 만드는 작업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 풀의 농도가 다 달라요. 풀은 온도, 습도, 비단의 종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 풀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풀을 다 만들면 맨 마지막에 금박을 붙이는 거죠.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금박 작업이란 보통 금박 공예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문양에 풀을 발라 찍고 금박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 전에 필요한 과정들이 훨씬 길지만, 단시간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금박을 붙이는 표면 작업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통 공예가 대부분 그래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길게는 몇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도구들이 정성스럽게 갖춰지면 그 때부터 또 다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나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삼십 년 이상 말린 것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돌배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나무는 건조시킨 후에 잘 다뤄야 해요. 그리고 아교, 특히 어교(魚膠: 민어의 부레를 끊어서 만든 풀)도 준비해야 해요. 옛날에는 접착제의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 아교장(阿膠匠)이 따로 있었어요. 근래에 와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때면 어교를 많이 쓰는데, 잘 말린 민어 부레를 직접 고아서 합니다. 풀칠하며 사용한 목판은 물에 집어넣어서 세척해야 하는데, 나무를 잘 다뤄놓지 않으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대패질과 건조, 데치는 과정 등 앞선 모든 것이 섬세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접착제도 다양하고, 편리해진 기술들도 있어요. 쉽게 접목되는 것은 실크 스크린 기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금박한 한복들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장에서 인쇄되는 전사지도 있어서 다림질만 하면 금박 문양이 쉽게 붙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문양을 손으로 직접 조각하고, 금박풀(약 6종류의 풀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만드는 전통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문양이 고르게 찍히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하지요. 전통 아교와 어교의 경우는 찍고 나면 10초 정도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빠른 손놀림으로 금을 붙여야 해요. 접착 후에도 아교가 상하지 않고 잘 건조되도록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곱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거풍도 하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하지요. 1년이 지난 후에도 한지에 써서 고이 보관하는 것까지, 전통 금박은 준비, 제작, 관리 과정에 크고 작은 노동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홍원삼(紅圓衫) 대례복 중 하나인 홍원삼은 왕비가 혼례 때 입는 옷이다. 봉황이 금박으로 장식되어있다.



현대의 취향과 수요에 따른 작업의 변화와 한계

옛날과 오늘날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선'입니다.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미학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용 문양이 제각각 다른 것과, 건축 양식에서 드러나는 선들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요즘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점점 서구화되어 가고, 우리가 쓰는 필기 도구도 붓에서 펜으로 변한 것처럼, 손에서 나오는 선의 느낌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선대에서 표현한 문양이 제게 와서는 선이 좀 가늘어지고, 직선보다는 곡선화 되거나 대형 위주로 변하고 있어요. 도구의 변화도 있지만, 현대의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순수예술과 달리 공예는 사용자에게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박은 내구성이 약해서 현대사회에서는 대중화가 어려워요. “세탁하면 금박이 떨어지나요?”라는 당연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생활 속 활용이 쉬운 민속 공예도 있지만, 사실 일부 공예품들은 일상적 활용보다는 관리가 더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 전통 금박 공예는 궁중 행사용 공예이지만 관화와 같은 순수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종의 내구성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다루기가 힘들어

금박연의 금 골동품상에 있는 금박 작업물들을 보면 금의 색이 까맣게 변한 경우가 있다. 이는 가짜 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금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구리 성분인 가금을 사용한 금박 작업물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금박 작업물들은 습도가 높아지면 변색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박 작업물들이 구리로 가금된 것인 반면, '금박연' 전시장 안에 있는 작업물들은 전부 순금으로 작업되었다.



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 문화의 멋이 실용성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저도 문화 체험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몰리는 북촌에 와서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라는 가곡의 가사처럼 일상에 순수한 멋의 가치가 옛날처럼 다시 주목 받았으면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문양 도용이에요. 현대에는 디지털 기술이 좋아서 도용이 쉬워진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양의 형태를 한번 바꾸는데 상당한 노력과 기술이 들어감에도 그런 지적 가치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문양이라도 다른 사람이 옮기면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새로 창작한 문양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하고, 도용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세부적 가치들이 진지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지요.

북촌으로 찾아온 '금박연'의 보람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반 받아서 했는데, 중반 이후로는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옛날처럼 종로에 나와야겠다 싶어, 2005년 즈음부터 북촌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정독도서관 부근 화동 쪽을 주시하며 몇 년 동안 삼 개월에 한 번씩 북덕방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기회가 되어 월세로 자리를 잡았었죠. 그곳에서 7년 정도 작업했어요. 지금 그 자리는 찾집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금박연'이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했던 공방이 그곳이에요. 그러다가 자수장이신 故한상수 선생님께서 공공한옥 입주를 제안하셨어요. 한 3년 동안 준비해서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2012년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작업장, 창고, 마당이 있는 바로 이 한옥만을 염두하고 준비했어요. 여기에 들어 온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시는데(웃음), 조선 시대부터 '금박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이름에 '금'과 '박'이 들어가야 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줘야 하고, 나중에 브랜드화 할 계획도 있어서 '금박향', '연금박' 등 많은 이름을 생각하다가 '금박연'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연'은 잔치연(宴)자예요. 2008년에 열린 아버님의 첫 번째 전시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것이기도 해요. 이후에도 작업공방의 이름으로 계속해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옷칠한 천 위에 동양의 별자리 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부금한 김기호 장인의 창작품. 별자리의 위치를 그대로 옮기고, 그 형태가 바뀌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옷칠한 천을 사용했다. 별자리의 바깥 부분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인 사신도에 등장하는 좌청룡·우백호·남주작·북현무, 네 사신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는 김기호 장인이 사신도를 보고 도안을 만들어 조각해 부금한 것이다.

서 사용하고 있어요.

북촌에 와서 좋았던 건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북촌에 오기 전과 달리, 이곳에서는 작가들과 갤러리 관장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전시회도 보고, 이 한옥에서 파티도 했어요. 처음 이곳에 와서 그 분들과 술도 마시고 작업의 고단함과 가치를 나누기도 했고, 왕래한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북촌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예술가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에요.

금박연에는 집안 대대로 찾아오시는 몇몇 손님들이 계세요. 제가 만든 작품이 추억을 상기시키거나, 손님들께서 사용을 고마워하실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의친왕의 따님인 이해경 왕녀도 다시 찾아오신 손님 중 한 분이예요. 재작년에는도 왔다 가셨죠. 아흔 살 가까이 되셨는데,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곳 금박연에 오셔서 우리나라 왕실 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었는데, 저에게도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인연이 닿는 손님들을 마주할 때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보람을 더욱 느낍니다.

금박에 담긴 간절한 소망

금박 박물관을 짓고 싶어요. 서울에 지어야 하고, 규모가 삼백 평 정도는 돼야 하고,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딩이어야 해요. 대충 백억 원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실행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제가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전시 자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쭙어 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로는 연간 유지비가 5억 정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해요.(웃음)

금박의 핵심은 금의 물성, 특히 요철의 특성을 살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얇은 금으로 포장하는 화려한 빛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담아내는 다양한 문양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대부분 '꿈'과 관련이 있어요. 흑부작 아니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하나같이 다 좋은 의미만 담겨있고, 그것을 간절히 기원하며 빛이 나는 금박까지 입혀 새겨 넣은 것이죠. 단순히 예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와 노력을 표현한 것이고, 저희 삶의 일부를 뜻합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소망, 그 자체에서 이미 빛이 난다는 것어요.

금박연

조선시대 철종(1849~1863), 1대 김완형으로부터 시작되어,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위해 황실 장인으로 금박일을 했던 2대 김원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을 위해 일했던 3대 김경용, 현 중요무형문화재 금박장 보유자인 4대 김덕환, 그리고 현재 금박연 공방을 운영 중인 김기호 내외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가업으로 금박 공예를 잇고 있다.

작업장에 방문하면 각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부금 시연과 금박 체험에 참여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24-12

운영시간 10:00~17:00 / 토 9:00~15:00 (수, 일, 명절 휴관)

전화 02-730-2067

메일 kumbakyeon@daum.net

홈페이지 www.kumbakyeon.com

체험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전통금박공예 체험이 진행됩니다.

*문의 :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02-741-2148)

• 전통금박문양액자(비단에 금박)

전통금박문양한지카드(한지에 금박)

전통 금박 문양의 사용과 구성에 대한 체험입니다.

순금 40,000원, 가금 13,000원, 학생 및 10명이상 단체 10,000원

- 약 30~60분 소요

• 전통금박문양서표(책갈피)

전통금박문양댕기

실크로 제작한 전통 서표(書標, Book Mark)/전통 댕기에 금박 문양을 올리는 체험입니다.

순금 50,000원, 가금 19,000원, 학생 및 10명이상 단체 15,000원

- 약 30~60분 소요

• 전통금박문양두루주머니

비단으로 제작한 두루주머니에 금박문양을 올리는 체험입니다.

순금 60,000원, 가금 25,000원, 학생 및 10명이상 단체 20,000원

- 약 30~60분 소요

심화 프로그램

금박 공예, 전통기법 도자기 수리 정규 과정 및 심화교육은 개인으로 신청 받으며 상담 후 시간 및 비용이 책정됩니다. (별도 문의)

외부 협력 방향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매년 참여하며 금박 작품 전시 및 공예 시연과 자체 기획 전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박 작품 제작 및 판매, 작품 협업

• 학교/기업/박물관 등 전통문화, 인문학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유의사항

프로그램 참여 시 사전 예약 바랍니다.